

“이석기·김재연 제명후 야권연대”

박지원, 심상정 원내대표 만나 조속 해결 주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와 관련, “통합진보당에서 매듭을 째어줘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를 받고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하자”며 “통합진보당이 하루속히 전열을 정비해 야권연대는 물론 국민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신속한 제명 뒤 야권연대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통합진

보당보다 스펙트럼이 더 넓고, 통합진보당은 나름의 정체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연대와 국민연대를 위해 상호 간의 정체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가 이뤄져야 되지, 자기 정체성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잘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제 3당을 만들어 주신 국민의 소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민주당에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저를 원내대표로 만들어주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 것은 우리 의원단이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빠른 속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관행과 관련, “(검찰은) 작년 C&G그룹 임병식 회장 수사 때도 ‘박지원 대리’고 유파질렀고, 심지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목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애경그룹 임모전 부회장은 이를씩이나 검찰에 가서 ‘박지원 불리’라고 조작을 당했다.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있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 경거망동한 연동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경험과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대표를 맡아 수권 정당으로 성장시키는 등 역할과 노력이 이번 대선에서 준비된 후보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세균 예비후보(맨 좌측)가 12일 여수박람회장을 방문, 강동석 조직위원장(가운데)과 환담하고 있다. 맨 우측은 동행한 김성곤 의원.

“해수부 부활 해양관광 활성화”

정세균, 여수서 민생 행보

“경제도 알고 정치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기영합보다 국가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민주통합당 제

18대 대통령 후보가 돼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12일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잘 관리하고 극복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 못지않게 박람회 이후 남해안 발전 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박람회를 계

기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시대를 열어야 하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관광 활성화 전담부서를 설치해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경험과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대표를 맡아 수권 정당으로 성장시키는 등 역할과 노력이 이번 대선에서 준비된 후보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11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종로에서 박근혜 전 비례위원장의 대리인격인 흥사역 전 의원과 간접적으로 경쟁해 승리한 바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서 ‘힐링 토크 콘서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여수를 찾아 젊은 층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황 대표는 이날 이정현 최고위원과 함께 여수시청이 운영하는 테크니션 스쿨을 방문해 20대 학생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힐링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사회생활 진출을 코앞에 둔 학생들에게 인생선배로서 조언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전남대 여수캠퍼스 도서관에서 ‘개미팅’을 갖고 대학생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대학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등록금이지만, 아직 우리 정부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 인하 정책이 충분히 피부에 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선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각 지역에서 요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김선동·오병윤, 신당권파 맹비난

“심상정, 야권연대 집권땐 총리 할 생각”

“진보진영은 종북과 분명한 선 그어야”



김선동 의원 오병윤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 을)은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을 ‘광주 학살’에 까지 비유하며 신당권파의 정치적 음모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11일 저녁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했듯이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당권 장악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구당권파를 과립처럼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동 의원은 심상정 원내대표 등 당내의 새진보연대 세력에 대해 “과거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서 우리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칼을 끊고 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당내 일각에서는 심 원내대표가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이 창출되면 총리를 할 생각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참여계가 지역구 당선자를 2~3명 더 냈으면 오히려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은 스스로 덮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면서 “결국 이번 사태는 신당권파의 당권 응집이 빚어낸 참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두 의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선 부정은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뛰어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경선 결과, 이 의원 지지표는 1만2000표, 2위 후보는 3000표에 불과했는데 상식적으로 부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종북은 있을 수도 없

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진보 진영은 종북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야권연대 동력 약화 등 12월 대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특히, 지역구민에 걱정을 끼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역 현안보다 이념 투쟁에만 나선다는 선입견을 해소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전선에서 활동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종북은 있을 수도 없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작

너무도 다른 두 경찰 수장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안재경 전남지방경찰청의 상반되는 리더십이 화제다.



윤현석〈사회부 차장〉

각 2902명과 4840명의 경찰관을 거느린 수장들이 너무도 다른 색깔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 조직과 안정된 조직, 여성과 남성, 도시와 농촌, 입문 배경 및 경력, 출신지 등의 요소에 의해 리더십의 차이가 결정되는 듯하다.

이 청장의 경우 지난해 전 광주경찰청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무관의 신분으로 치안감 자리인 광주경찰청에 급파됐다.

순경으로 출발해 경찰 내 여성인 세율 수 있는 기록을 모두 깨아치우고 있는 이 청장으로서는 주로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인 남성 간부들을 데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꼼꼼하게’ 업무를 펼겨나갈 수밖에 없었다. 충북이 고향인 그녀가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부하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기는 ‘지시’와 ‘평가’였다 것이다. 덕분에 이 청장 취임 이후 광주경찰청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며, 경무관에서 곧 치안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안 청장은 이 지역에서 나고 대학교육까지 마친 뒤 행정고시를 통해 경찰에 입문, 장기간 타지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발을 들인 지 20년이 다 돼 금의환향했다.

34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할 만큼 검소하고, 업무 추진비가 아닌 자신의 지갑을 털어 직원에게 생일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 스스로 없이 주민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을 이끄는 것도 그의 특징이다. 취임 당시 장관한 친임사가 아닌 ‘유레이즈 미업(You Raise Me Up)’이라는 팝송을 틀면서 재치와 유머도 가지고 있다. 오랜 만에 찾은 고향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주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지원적 리더십·참여적 리더십·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분류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이 청장은 지시적 리더십, 안 청장은 지원적 또는 참여적 리더십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다. 지시적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 빛을 밟지만 안정기에는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지원적 또는 참여적 리더십은 조직 전체가 자칫 느슨해지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총경급 인사에서 광주경찰청 총경 일부가 전남 청으로의 전보를 지원했고, 일부 직원들 역시 이 청장의 지시적 리더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리더십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하며, 균등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성취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를 바로 보고, 부하들의 고충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는 언제나 존중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자리에 오른 지 각각 1년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두 경찰 수장은 상대방의 리더십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chadol@kwangju.co.kr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례사회관 옆 건물)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농성동[원룸] 대지99m² 건물2456m² 김정가 4억6천 최저가 3억2천

영암삼호[근린시설] 대지77m² 건물1152m² 김정가 9억2천 최저가 4억1천

화순도곡 [방원직립] 대지234m² 건물2480m² 김정가 42억3천 최저가 15억1천

전주우아동[나이트] 대지1794m² 건물3968m² 김정가 47억4천 최저가 24억 청약가 24억

신안동[스포츠타운] 대지3026m² 건물25584m² 김정가 69억3천 최저가 24억8천

차평동[유동주점] 대지164m² 건물2944m² 김정가 19억8천 최저가 12억7천

중흥동[방원직립] 대지2075m² 건물21510m² 김정가 124억7천 최저가 44억7천

대전[웨딩홀] 대지915평 건물5346평 김정가 22억9천 최저가 12억7천

▶ 대전[웨딩홀] 대지 915평 ▶ 건물 5346평 ▶ 김정가 22억9천 ▶ 최저가 12억7천

대전[웨딩홀] 대지129억[협의후결정] 대지9076평 건물12943평 김정가 515억7천 최대가 160억[시설비별도]

▶ 대전[웨딩홀] 대지 129억[협의후결정] ▶ 대지 9076평 ▶ 건물 12943평 ▶ 김정가 515억7천 ▶ 최대가 160억[시설비별도]

▶ 울산울주[숙지마]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김정가 18억2천 최대가 9억[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김정가 135억 최대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울산울주[숙지마]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김정가 18억2천 최대가 9억[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김정가 135억 최대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울산울주[숙지마]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김정가 18억2천 최대가 9억[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김정가 135억 최대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대전[웨딩홀] 대지 129억[협의후결정] 대지 9076평 건물 12943평 김정가 515억7천 최대가 160억[시설비별도]

▶ 대전[웨